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이사야 1장 17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은, 교회들과 교파들 사이에 나타나는 분열이 더욱 넓은 인류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다.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하여 성찰하게 되고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억압과 분열에 맞서는 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기도순서지

일시: 2023년 1월 18일(수) 오후 7시

장소: 천주교 인천 논현동성당 & 유튜브



한국신앙과직제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교황청 · 세계교회협의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정교회와 개신교회를 대표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창립한 협의체로, 2002년부터 본격화된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활성화와 일치 증진의 성과에 힘입어, 2014년 5월 22일 창립하였습니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30년, 개신교 130년, 정교회 120년. 이 역사 안에서 한국 그리스도교는 일치와 협력의 경험보다는 선교 전략상의 의도적인 차별화 정책으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지내왔고, 개신교 내부에서의 많은 교파 분열은 이러한 인식을 굳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11)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선교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가깝게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를 통해 한국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교파 간의 신앙적 친교를 이루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소개.....	4
2023년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6
기도예식.....	8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중요한 날들.....	24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역사.....	25
정교인,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함께 하는.....	26
8기 일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소개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Poul Wattson)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울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그리스도인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직제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미네소타 교회협의회가 소집한 미국 그리스도인 모임이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 준비를 준비하였다. 이 그룹은 2020년 12월에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만났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서로 이미 알고 있었고, 모든 이가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를 알고 있었다. 일부는 그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지도자들이었고, 자신들의 교회와 공동체의 활동가/사목/목회자들이었다. 교향청 그리스도인 일치축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국제준비위원회는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을 마무리하고자 2021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샤토 드 보세에서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대표들과 만났다.

미국에서 유색인 공동체를 확대한 역사는 오랜 세월을 걸쳐 공동체 간의 불공평과 관계의 균열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미국 교회의 역사는 인종 문제를 교회 분열의 주요 요소에 포함한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교리와 무관한 다른 사안들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가 해 온 일치에 관한 신학적 활동이 전통적으로 교회 일치를 추구하고 인종 차별과 같은 인류 가족을 분리하는 장벽들의 극복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려고 한 이유이다. 그래서 하나님

과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되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인 우리를 갈라놓는 것에 맞서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기도, 특히 일치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네소타 집필 위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종 차별과 인간 폄하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 자녀의 비인간성에 대한 증언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바로 마음속 깊은 갈망으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열에 맞서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치의 선물을 구현한다.

국제준비위원회 위원

- Revd. Father Martin Browne, OSB- Glenstal Abbey, Ireland
- Ms. Anne-Noëlle Clément-Unité Chrétienne, France
- Revd. Anthony Currer-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Vatican
- Dr. Masiwa R. Gunda-Programme Executive for Overcoming Racism,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WCC, Switzerland
- Revd. Dr Odair Pedroso Mateus-Director of Faith and Order -WCC, Switzerland
- Revd. Father James Puglisi-Friar of the Atonement, Centro Pro Unione, Italy/USA
- Revd. Dr Mikie Roberts-Programme Executive for Spiritual Life -WCC, Switzerland
- Revd. Dr Jochen Wagner-Arbeitsgemeinschaft Christlicher Kirchen in Deutschland, Germany

미네소타교회협의회 참석자

- Revd. Dr DeWayne L. Davis-Pastor, Plymouth United Church of Christ, south Minneapolis
- Revd. Jia Starr Brown-Pastor, First Covenant Church, Minneapolis
- Revd. Anthony Galloway-Pastor, St. Mark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Duluth, Minnesota
- Presiding Elder Revd. Stacy L. Smith-Presiding Elder, St. Paul/Minneapolis District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 Ms. Leslie E. Redmond Esq.-Founder of *Don't Complain Activata*&Former President of Minneapolis NAACP
- Revd. Dr. Kelly Sherman Conroy-Nativity Lutheran Church, Minnesota
- Revd. Jim Bear Jacobs-Minnesota Council of Churches
- Revd. Antonio Machado-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America, Dr. Cynthia Bailey Manns Director of Adult Education, Saint Joan of Arc Catholic Church
- Revd. Dr. Curtiss DeYoung-CEO Minnesota Council of Churches
- Revd. Dr. Amy Gohdes-Luhman-Pastor, Waconia Moravian Church, Waconia Minnesota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이사야서 1장 17절)

† 평화를 빕니다.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은 미국 미네소타 교회협의회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미네소타는 인종 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었으며, 최근에도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젊은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산적한 문제점들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자신들의 경험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덤덤히 이 일을 서술하고 있지만 미네소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부조리의 역사를 일일이 들춰서 다시 들여다보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인종 분리적 시간이라는 … 사실은 우리나라의 비극 가운데 하나이자 가장 수치스러운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일치와 인류의 불일치 간의 접점을 드러내는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분열의 뿌리는 죄, 다시 말해 주님께서 피조물 전체에 바라시는 일치를 거스르는 태도와 행동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2023년의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일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힘겹게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더 맹렬하게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의 병폐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려 줍니다.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이사 1:7) 미가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오랜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공의란 회복적 정의이며, 침묵 당한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며, 불의를 만들고 유지하는 체제를 바꾸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마땅한 권리를 반드시 누리도록 촉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봅시다. “폭동은 침묵 당한 이들의 언어이다.” 정

치나 법의 잣대로 보면 폭동은 납득받지 못할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폭동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재빠른 대책과 도움이 없이는 사회가 존속되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는 이전의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우리 시대에도 울려 퍼지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이 누구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악행과 불의에 맞서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통찰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입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갈라진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노력 끝에 일치에 대한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봅시다. 선을 행하고, 공정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피십니다.

2023년 1월 18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한국천주교회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순창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연홍 총회장
구세군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윤창섭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우시홍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
- ✧인도: 장기용 신부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
 - ✧반주와 성가: 가톨릭생활성가팀 주나래

그 동안의 합의에 의해서

(1)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를 사용합니다.

기도회에 사용되는 용어는 공동번역 성서를 인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2) 개신교찬송가, 혹은 가톨릭성가의 가사는 그대로 씁니다.

.....

1968년 천주교와 개신교 성서학자를 중심으로 성경의 '공동번역위원회'가 결성되어 1971년 신약성경이, 1977년 구약성경이 완역되어 『공동번역 성서』로 출판하였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와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지체협의회 공동 문서는 『공동번역 성서』를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치기도회 순서

시작 성가 -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개신교찬송가 286)

성가를 부르는 동안 순서자들은 행렬로 입장한다.

보통으로

1.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불 들어주 시 고
 2.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 원 다 아 시 고
 3.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 결 케 하 시 고
 4.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 도 하 시 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후렴

사 랑의 주 사 랑의 주 내 맘 속에 찾 아 오 사

내 모든 죄 사 하 시고 내 상한 맘 고 치 소 서 아 멘

예식으로의 초대

인도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세례의 물로써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지만, 죄를 지어 서로에게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억압 앞에서 공정을 추구하지 않았고, 또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하느님의 명령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우리가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성찰하고, 선행을 배우고 공정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분열을 이겨내고, 우리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온 체제와 체제를 뿌리 뽑으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는 일치가 단단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포용의 풍성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다양성의 보화를 발견하는 용기를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¹⁾

성가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개신교찬송가 425, 가톨릭성가 62)

보통으로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발앞에 엎드리니
 3.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4.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라

진흙과 같은 날빛으사 주님의 형상만드소서
 나의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 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멘

1) 마틴 루터 킹 목사

환영 인사

❖ 송용민 신부 (천주교 인천 논현동성당 주임)

고백과 용서로의 초대

❖ 조진호 사관(구세군한국군국 인사국장)

이사야 1장 12-18절의 독서를 통한 고백과 용서

인도자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라고 초대받았습니다.

말은이 “너희가 나를 보러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 뜰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제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사 1:12-13ㄱ)

회 중 **주님, 저희가 겸손하지 않은 걸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니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잠시 침묵)

말은이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사 1:13ㄴ-14)

회 중 **저희는 세계 곳곳에서 겪은 식민주의의 악행에 교회가 연루된 데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나이다.**

(잠시 침묵)

말은이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사 1:15)

회 중 저희는 하느님 피조물의 다채로운 조화를 짓밟아 버린 불의와 억압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나이다.

(잠시 침묵)

*세례대 앞에서 인도자는 독서를 읽는 동안 세례대에 물을 천천히 붓는다.
물은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의 세례를 의미한다.*

말은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사 1:16-17)

회 중 저희가 세례의 생명의 물로 깨끗이 씻었으니, 저희를 새롭게 용서하시고 저희가 서로 화해하고 피조물과 화해하게 하소서.

(잠시 침묵)

말은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인도자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여러분이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되이 여러분의 하느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잠시 침묵)

인도자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회 중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

❖ 이상선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서울지방회장)

말은이 모든 이의 하느님, 저희가 저지른 불의와 분열의 죄를 고백하고자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어진 이 기회에, 마음과 몸을 다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는 하느님 피조물의 아름다운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가족을 이루며 다 함께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 가운데에는 토착민들, 노예살이의 후손들, 노예를 부리던 이들의 후손들,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있사오나 저희는 모두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옵나이다.

저희는 하느님을 찬미하나이다. 세례의 생명의 물로 진홍빛같이 붉은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하느님 가족, 그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나이다. 창조주 하느님께 저희는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저희는 이 여정을 함께하며, 모든 민족이 함께 나누고 전하는 거룩한 지혜로 이해하고 성장하도록 마음과 눈을 열어 이 날을 거행하나이다. 저희가 서로 일치를 이루고, 성령께서 하느님의 피조물 가운데 모이게 해주신 한 가족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

회 중 아멘.

성가 - 주 예수 따르기로 (가톨릭성가 29, 개신교찬송가 447)



1. 주 예수 따 르 기 로 나 약 속 했 으 니 내
 2. 이 세 상 온 갖 유 혹 내 맘 을 혼 들 고 내
 3. 저 영 광 빛 나 는 곳 주 내 계 보 이 니 그



친 구 되 신 주 여 늘 함 께 하 소 서 주
 모 든 원 수 들 이 늘 께 께 하 소 서 주
 아 름 다 운 곳 을 늘 사 모 합 니 다 주



함 께 게 시 오 면 나 든 든 하 읍 고 주
 나 를 돌 아 보 면 내 든 든 하 읍 고 주
 예 수 섬 기 기 로 나 약 속 했 으 니 끝



나 를 이 끄 시 면 바 른 길 가 리 다
 옆 에 계 시 움 을 께 달 게 하 소 서
 까 지 따 라 가 게 용 기 를 주 소 서

서간독서, 에베소서 2,13-22

✧ 임종훈 신부 (한국정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

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잇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제42편(화답송)

❖ 최은영 목사(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말은이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 언제 가서 뵈오리이까?

회 중 하느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말은이 “너의 하느님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온종일 빈정거리니
밤낮으로 흘린 제 눈물 저의 빵이 되나이다.
영광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은 가운데
축제의 무리와 행진하던 일 되새기며 제 영혼이 북받쳐 오르나이다.

회 중 하느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말은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회 중 하느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말은이 낮 동안 주님이 자애를 베푸시니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 부르고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드리네.
 나의 반석 하느님께 말씀드렸네.
 “어찌하여 이 몸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핍박 속에 슬피 울며 걸어가야 하나이까?”

회 중 하느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말은이 “너의 하느님 어디 있느냐?
 적들이 온종일 빈정거리며 제 뼈가 으스러지도록
 저를 모욕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있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회 중 하느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복음환호송



복음, 마태복음서 25,31-40

❖한강희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잡게 할

것이다. 그 때에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강론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 김희중 대주교(본 협의회 공동의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 위원장)

돌과 이야기

인도자 살아 있는 돌들인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야기들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곧추세워집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인 일치의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엮여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친교를 이루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이야기들도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나, 나와 우리가 연결된 자신의 돌을 손에 들고서, 그리스도의 일치를 위해, 세상에 주님의 공정과 의로움을 알리는 선행이 우리 자신이 역사가 되고 이야기가 되기를 다짐하며, 각자의 돌을 제단 앞에 드리겠습니다.

회 중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불의와 불공평, 차별과 구조적 악으로 인해 고

통받으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과 말 못하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저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용기가 되게 해 주소서. 그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소서. 아멘.

음악이 흐르고,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돌'로 상징되는 '자신의 역사'를 바친다.

성가 - 평화를 구하는 기도 (가톨릭성가 70)

평화의 주-여 하-찮은 나지만 당
 신의 도 구로써 주-소-서

1. 비움이 있는 곳에 사방을 베풀고
 3.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찾-고

D.C.
 다름이 있는 곳에 용서를 청하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구하며

2.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고
 4.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D.C.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심으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며

중보 기도

- ❖1. 임종훈 목사(인천 소망루터교회)
- ❖2. 박수진 목사(치유공간 결)
- ❖3. 유홍근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부장)
- ❖4. 환핑핑 마리골롬바 수녀(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기도자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 앞에서
저희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창조주 하느님,
오늘날 저희는 누군가에게는 이어가기 버거운 삶을,
누군가에게는 넘쳐나는 풍요를 가져다준
행동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하느님의 피조물을 존중하면서
저희가 받은 자원들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신임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하느님께 울부짖고 있나이다.

회 중 그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소서.

기도자 2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서로에게 준 피해와
하느님 백성들 사이에 만들어 놓은 분열을
회복하게 저희를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가 생겨나도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저희의 갈등을 치유하도록 저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일치의 선물을 주소서.

회 중 그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소서.

기도자 3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께서는 분열의 장벽과 속박의 편견을 허무시며
선행을 베푸시어 이 땅에 공정을 이루셨나이다.

저희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저희 마음과 정신을 열어 주소서.

회 중 그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소서.

기도자 4 성령님, 성령께서는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만드시나이다.
산의 정상이, 하늘의 천둥이, 호수의 찰랑거림이 저희에게 말하나이다.

회 중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자 4 희미한 별빛이, 아침의 상쾌함이, 꽃들에 맺힌 이슬들이 저희에게 말하
나이다.

회 중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자 4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가,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저희에게 말하나이다.

회 중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자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은 하느님께로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
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회 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각자의 전통대로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

인사

❖ 이홍정 목사 (본 협의회 공동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마침기도

인도자 영원하신 하느님,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인 이들의 얼굴을 굽어보시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이들을 파견하소서.

이들이 성령에 힘입게 하시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선을 행하며, 하느님 피조물을 위한 정의를 행동으로 추구하게 하소서.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어, 이 세상이 생명을 얻어 누리도록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믿게 하소서.

파견과 축복기도

❖참석한 교회지도자들이 함께 축복합니다.

말은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회 중 아멘.

파견 성가 - 하나되게 하소서 (가톨릭성가 39장)



1. 성 - 부 여이사람들 이 아 버 지의뜻을따
 2. 성 - 부 여내게말기 신 이 사 람을지키시
 3. 성 - 부 여사람들에 게 아 버 지를증거하



라 진 리 위 해 몸 바 치 는 사
 고 나 당 신 과 하 나 이 듯 이
 며 당 신 나 를 사 랑 하 고 내



람 이 되 게 하 소 서 성 부 나 를 이 -
 사 람 들 도 모 두 가 하 나 되 게 하 -
 안 에 항 상 계 시 듯 내 생 명 을 다 -



세 상 에 보 내 심 과 같 - 이 나 도
 읊 소 서 아 버 지 말 씀 - 은 모 두
 바 쳐 서 사 랑 하 오 리 - 니 모 두



사 도 들 을 - 세 상 에 파 견 하 읊 니 다
 진 리 이 며 - 생 명 의 말 씀 이 읊 니 다
 아 버 지 의 - 사 랑 을 알 게 하 읊 소 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중요한 날들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데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나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울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기도주간의 준수를 장려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 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 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 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작성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역사

- 1965년 대한성공회 천주교 상호 방문 기도회 개최
- 1986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8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8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89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90년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1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2년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서울복음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3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4년 한국기독교회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5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96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7년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대성당 (설교: 한국정교회)
- 1998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9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0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1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설교: 천주교)
- 2002년 천주교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3년 기독교한국루터회 중앙루터교회 (설교: 천주교)
- 2004년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설교: 천주교)
- 2006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7년 성공회 대전교구 청주수동성당 (설교: 천주교)
- 2008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보문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9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0년 천주교 부산교구 중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1년 구세군대한본영 아현교회 (설교: 천주교)
- 2012년 한국정교회 성니콜라스 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3년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목민교회 (설교: 천주교)
- 2015년 한국 천주교 명동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주중앙교회 (설교: 천주교)
- 2017년 기독교한국루터회 옥수동루터교회 (설교: 천주교)
- 2018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회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9년 한국구세군 구세군영등포교회 (설교: 천주교)
- 2020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쌍암동성당(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21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유튜브 생중계)(설교: 천주교)
- 2022년 한국 천주교 대림3동성당(유튜브 생중계)(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교인,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함께 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8기) 수강생 모집

- 일 시: 2023년 4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총10강)
- 장 소: 미정 (*온라인과 현장 강의 병행)
- 수강비: 10만원(교재비 포함)
- 대 상: 평신도 천주교인 25명, 개신교인 25명(선착순, 수도권목회자 가능)
- 문 의: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02-743-4471

강사 (*변경 가능성 있음)

송용민 신부	독일 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손정명 수녀	로마 안토니아눔 신학대학,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안교성 목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현혜 목사	일본 도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민균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준양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태식 신부	독일 괴팅엔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임중훈 신부	서울대학교, 정교회출판사 편집장
조기연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장동훈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운재 목사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찬석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협성대학교 교수
조현철 신부	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정경일 박사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7기 일치아카데미 수료식>

커리큘럼(*변경 가능성 있음)

강의	주제와 내용
1강	(개강)오리엔테이션,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2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 : 정교회와 천주교회
3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I : 개신교회, 종합토론
4강	다양한 교회인가, 하나인 교회인가? : 그리스도인 일치운동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	
5강	나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 : '구원'에 대한 상호 이해
6강	성경만으로, 성례만으로? : 말씀과 성례(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
7강	“누가 교회인가?” : 교회의 직무와 직제에 대한 상호 이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일치	
8강	오늘의 생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9강	그리스도교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10강	(종강)종합토론, 수료식

